

# 친족대상 범죄 증가...최근 4년 1만명 넘어

## 국감 자료로 본 광주·전남

#1. 지난 4년간 광주·전남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친족 대상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전남 친족 대상 범죄자는 1만103명이다.

이 기간 광주의 친족범죄자는 3816명이었다. 지난 2014년 805명, 2015년 974명, 2016년 998명, 지난해 10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남에서는 친족범죄자가 628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127명, 2015년 1626명, 2016년 1846명, 지난해 1688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의 친족범죄자는 모두 14만7545명이며, 경기(4만6263명), 서울

5년간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 531명 검거  
보호조치 종료 아동 4명중 1명 연락두절 자립지원 못받아

(2만2170명), 인천(9616명) 순이다. 폭력범죄가 12만370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와 같은 지능범죄 5232명(3.5%), 살인 등 강력범죄 4662명(3.1%) 순으로 나타났다.

#2.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검거된 인원이 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운전자를 폭행해 붙잡힌 광주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는 289명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42명이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3987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113명이 구속됐다.

한행법상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광주·전남에서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체제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아오다 보호 종료된 아동 4명 중 1명은 연락이 두절돼 자립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광주·전남에서는 891명이 보호조치가 종료됐는데 이 중 226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이 기간 광주에서는 254명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40명이 연락두절됐다. 전남에서는 637명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186명이 연락이 끊겼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시설, 위탁가정 등에 생활하는 보호 아동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 운영으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전국에 걸쳐 435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

반하면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아동과 영유아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도는 앞서 2016년 도입됐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택시·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지 않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이는 혼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경찰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달 2일 함평에 문 열어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전담할 전남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내달 초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직업재활관'이 다음 달 2일 함평군 함평읍 전남 직업능력개발원 안에 문을 연다.

지원센터는 산업 안전, 간병 보조, 사무행정 지원 등 12가지 직무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전환교육 자료개발, 유관 기관 연계 취업지원, 교사·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이 졸업 후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고 시설, 인력 등을 준비했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28명이다.

대학 등 진학자 138명을 제외한 290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65명으로 22.4%의 취업률(전국 평균 30%)을 보였다.

전남 22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광양, 함평, 장흥에는 거점센터가 설치됐다. 전남교육청은 2020년까지 목포, 해남, 순천, 나주에 거점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김형호 기자 kh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5 달뜨기 20:29  
해질 18:21 달짐 09:07

### 서늘한 출근길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세요

광주	구름많음	14/24	보성	구름많음	11/23
목포	구름많음	16/25	순천	구름많음	15/24
여수	구름많음	17/23	영광	구름많음	12/25
나주	구름많음	12/25	진도	구름많음	14/24
완도	구름많음	16/24	전주	구름많음	13/25
구례	구름많음	10/24	군산	구름많음	14/23
강진	구름많음	12/25	남원	구름많음	11/24
해남	구름많음	12/25	흑산도	구름많음	18/24
장성	구름많음	12/2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부	면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2.5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2.0~3.0	북동~동	1.5~3.0
	면바다(서)	북동~동	2.0~3.0	북동~동	2.0~3.0

◇생활지수

- 식중독
- 높음
- 지외선
- 중음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9:10	04:01	21:31	16:26
여수	04:31	10:54	16:49	23:03

### ◇주간 날씨

29(토)	30(일)	10/1(월)	2(화)	3(수)	4(목)	5(금)
☁	☁	☁	☁	☁	☁	☁
16/25	16/24	14/22	13/23	12/24	13/24	13/25

## 주말 청명한 가을 하늘...내달 7일까지 맑은 날씨 지속

이번 주말과 휴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과 29일 광주·전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 따라 구름이 가끔 끼는 곳도 있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8도~17.9도, 낮 최고기온은 24.1도~25.5도로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또 다음달 7일까지 비 소식

이 없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복사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10도 안팎 일교차가 나타나 다소 쌀쌀한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에는 남해서부면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등 바다 물결이 높고 바람도 강해 항해,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퀵런형 전자담배 사용자 대부분 일반담배 함께 피우

퀵런형 전자담배 사용자 대부분은 일반 담배도 함께 피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흡연량만 늘어난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연구팀은 "국내 19~24세 남녀 228명을 대상으로 퀵런형 전자담배의 인식과 경험 등을 설문한 결과 모든 아이코스 사용자가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은 아이코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3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진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응답 시점에서 현재 아이코스를 사용 중인 응답자는 8명(3.5%)이었다. 특히 아이코스 사용자 전원이 일반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코스가 덜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용을 결정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합뉴스

올 가을엔 고추장 익어가는 순창에서 만나요!

# 제13회 순창장류축제

2018. 10. 19(금) ~ 21(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축제 HOT 이슈!**

- ◆ 2018인본 고추장 떡볶이 파티
- ◆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 고추장소스 숯불구이 체험

**세대공감!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 ◆ 즐겨보자!! in 장류 키즈랜드
- ◆ 추억에 남겨보자!! in 추억의 거리
- ◆ 맛보자!! in 세계 발효소스 박물관

**순창의 밤은 낮보다 HOT하다!**

DJ와 함께 하는 EDM 쇼  
장류마을 "좀비야 놀자"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